

## 나스닥, 달러 약세, 금리 하락 불구 경기 위축 우려 속 하락 지속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미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경기침체 이슈의 지속에 따른 매물 출회로 제한적인 혼조세로 출발. 그러나 차량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테슬라(-3.21%)의 약세가 뚜렷한 가운데 출하량 추가 감소 소식이 전해진 애플(-1.38%) 등 개별 기업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스닥의 약세가 지속. 이는 경기 둔화 여파로 해석. 결국, 달러 약세와 국채 금리의 하락폭이 확대되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변화를 보였으나, 여전한 경기 둔화 우려와 개별 종목 이슈로 나스닥 중심 하락 마감(다우 +0.00%, 나스닥 -0.51%, S&P500 -0.19%, 러셀2000 -0.31%)

###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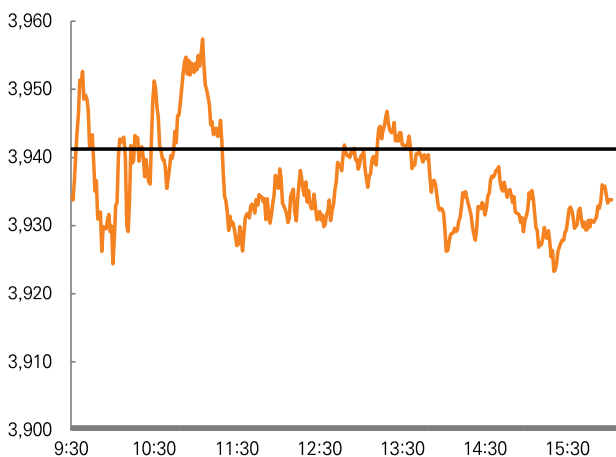
•테슬라(-3.21%)는 번스타인이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표하자 하락. 니오(-4.98%), 샤오펑(-5.90%)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은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과 함께 테슬라 부진 여파로 매물 출회. 알리바바(-3.41%), 징둥닷컴(-3.15%)등도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 쇼피파이(-1.23%), 쉐이(-1.17%)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과 익스피디아(-6.32%), 트립어드바이저(-6.41%), 부킹닷컴(-4.24%) 등 온라인 여행 업종에 대해 울프 리서치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 한국 증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54%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4.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5%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미 증시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테슬라 등 일부 종목군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약세를 보이자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그러나 개별 기업들의 하락 요인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부분 반영돼 왔던 요인임을 감안 관련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 오히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투자 심리 개선 요인. 한편, KOSPI200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이미 12월물보다 3월물이 2배 이상 많아 상당 부분 롤오버가 진행되어 만기일 수급 이슈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미 증시의 내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 지수명     | Close     | D-1(%) | 지수명      | Close     | D-1(%) |
|---------|-----------|--------|----------|-----------|--------|
| KOSPI   | 2,382.81  | -0.43  | 상해종합     | 3,199.62  | -0.40  |
| KOSDAQ  | 718.14    | -0.18  | 홍콩항생     | 18,814.82 | -3.22  |
| DOW     | 33,597.92 | +0.00  | 베트남      | 1,041.02  | -0.73  |
| NASDAQ  | 10,958.55 | -0.51  | 유로스톡스 50 | 3,920.90  | -0.46  |
| S&P 500 | 3,933.92  | -0.19  | 영국       | 7,489.19  | -0.43  |
| 캐나다     | 19,973.22 | -0.08  | 독일       | 14,261.19 | -0.57  |
| 일본      | 27,686.40 | -0.72  | 프랑스      | 6,660.59  | -0.41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금리, 달러 약세 요인 ② 테슬라, 애플 요인

미국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0.8%(yoy -1.3%) 증가한 것으로 발표돼 예비치인 0.3%에서 상향 조정. 지난 1, 2분기 각각 5.9%, 4.1%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해 경기 둔화 이슈를 지속적으로 자극

그런 가운데 단위 노동 비용은 2.4% 상승에 그쳐 예비치인 3.5% 상승에서 하향 조정. 이는 시간당 임금은 3.2% 증가했지만 생산성이 0.8%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렇듯 지난 1,2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8.5%, 6.7% 상승에서 크게 하향 조정되자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음.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금리가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달러화도 약세. 다만,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개별 기업 요인과 경기 둔화 이슈로 부진.

테슬라(-3.21%)의 하락이 뚜렷. 이는 투자회사인 번스타인이 차량 수요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테슬라는 중국에서 6천위안의 가격 할인을 하고 미국 구매자들에게도 3천 달러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연말 수요를 관리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내년에는 최고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내년으로 구매를 늦추고 있기 때문. 그런 가운데 번스타인이 이유가 뭐든 할인된 가격으로 인해 4분기 영업이익이 2%p 감소할 것이라며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부진.

애플(-1.38%)은 모건스탠리가 지난 11월 600만대 축소에 이어 12월 아이폰 출하량이 300만대 더 축소될 것이라며 4분기 매출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발표. 여기에 아이폰 공급체인 중 하나인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수요 부진을 이유로 향후 몇 개월 동안 아이폰14 시리즈 생산계획을 더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 이 소식 등으로 애플의 하락이 지속.

그렇지만, 관련 소식은 이미 많은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 오히려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 등으로 관련 종목군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내년 이연 수요 증가 기대도 배제할 수 없어 낙폭이 확대되지는 않음.



## 테슬라, 중국 기업 부진

테슬라(-3.21%)는 번스타인이 차량 수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표하자 하락. 니오(-4.98%), 리오토(-2.21%), 샤오핑(-5.90%)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은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과 함께 테슬라 부진 여파로 매물 출회. 알리바바(-3.41%), 징둥닷컴(-3.15%), 바이두(-2.34%) 등 중국 기업들도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소식에도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으나, 미 국채 금리 하락 영향으로 낙폭은 제한.

쇼피파이(-1.23%), 추이(-1.17%)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과 익스피디아(-6.32%), 트립어드바이저(-6.41%), 부킹닷컴(-4.24%) 등 온라인 여행 업종에 대해 울프 리서치가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울프 리서치는 2023년 경제 둔화 속 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필수품이 아닌 온라인 매장의 경우 지출 감소가 뚜렷할 것이라고 전망. 온라인 소비 업체인 넷시(-3.61%)와 델타 항공(-4.40%), 아메리칸 에어라인(-5.44%) 등 항공, 카니발(-4.41%) 등 크루즈 업종도 동반 하락.

건설업체 레나(+3.61%)는 다음 주 발표할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DR호튼(+2.81%), 풀티그룹(+2.81%) 등도 동반 상승했으며 주택 인테리어 업체인 로스(+2.47%)는 투자자의 날을 맞아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발표와 장기 성장 계획을 발표하자 상승. 휴디포(+0.85%)도 동반 상승. 화이자(+1.07%)는 FDA가 호흡기 세포 바이러스 백신 후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 (XOP)    | -0.87  | 대형 가치주 ETF (IVE)    | -0.01  |
| 클린테크 ETF (CTEC)     | -0.76  | 중형 가치주 ETF (IWS)    | -0.29  |
| 소매업체 ETF (XLY)      | -0.60  | 소형 가치주 ETF (IWN)    | -0.49  |
| 온라인소매 ETF (EBIZ)    | -1.71  | 대형 성장주 ETF (VUG)    | -0.41  |
| 미국 인프라 ETF (PAVE)   | -0.04  | 중형 성장주 ETF (IWP)    | 0.00   |
| 핀테크 ETF (FINX)      | +0.10  | 소형 성장주 ETF (IWO)    | -0.06  |
|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 -0.50  |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 -0.18  |
| 클라우드 ETF (CLOU)     | -0.31  |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 -0.13  |
| 사이버보안 ETF (BUG)     | -0.67  |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 -0.24  |
|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 +0.14  | 미국 국채 ETF (IEF)     | +0.88  |
|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 +1.40  | 하이일드 ETF (JNK)      | +0.49  |
| 바이오섹터 ETF (IBB)     | +0.66  | 신흥국 채권 ETF (EMBD)   | +1.13  |
| 로봇&AI ETF (BOTZ)    | -0.14  | 물가연동채 ETF (TIP)     | +0.43  |
| 반도체 ETF (SMH)       | -0.02  |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 +1.11  |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1개월(%) |
|---------|----------|--------|--------|----------|
| 헬스케어    | 1,611.67 | +0.85  | -0.43  | +4.69    |
| 필수소비재   | 791.81   | +0.38  | -1.54  | +4.94    |
| 부동산     | 238.56   | +0.26  | -2.95  | +5.32    |
| 산업재     | 837.76   | -0.14  | -2.37  | +3.11    |
| 소재      | 509.25   | -0.25  | -2.01  | +6.52    |
| 에너지     | 647.47   | -0.29  | -6.74  | -9.33    |
| 금융      | 573.10   | -0.45  | -4.87  | +0.83    |
| 유틸리티    | 357.43   | -0.47  | -1.06  | +7.04    |
| 경기소비재   | 1,073.98 | -0.48  | -5.26  | +1.28    |
| IT      | 2,260.23 | -0.51  | -4.71  | +5.13    |
| 통신      | 164.99   | -0.93  | -4.60  | +6.34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KOSPI 200 리밸런싱 영향으로 종목 변동성 확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0.54%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5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4.5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5%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여파로 하락. 더불어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예상을 하회한 점도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 장중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수급적인 부담도 영향. 여기에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발표 직후 차익 매물 출회되며 중화권 증시가 낙폭을 확대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KOSPI는 0.43%, KOSDAQ은 0.18%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테슬라 등 일부 종목군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약세를 보이자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그렇지만, 개별 기업들의 하락 요인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부분 반영돼 왔던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 오히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투자 심리 개선 요인.

더 나아가 비록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임금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달러화 또한 약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한편, KOSPI200 선물의 미결제 약정이 이미 12월물보다 3월물이 2배 이상 많아 상당 부분 롤오버가 진행되어 만기일 수급 이슈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이러한 미 증시의 긍정적인 내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

이런 가운데 KOSPI 200 리밸런싱 이슈도 주목. 종목 변경은 1종목 교체에 그치지만 유동주식비율 조정에 따른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이 클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개별 종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에 따른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3분기 단위 노동비용 큰 폭 하향 조정

미국 3분기 비농업 생산성은 0.8% 증가로 발표돼 예비치인 0.3% 증가나 예상치인 0.4% 증가를 상회. 단위 노동 비용은 2.4% 상승에 그쳐 예비치인 3.5% 상승이나 예상치인 3.3% 상승을 크게 하회.

미국 모기지 신청건수는 지난주 대비 1.9% 감소했으나 재 신청 건수는 4.7% 증가.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 유럽 천연가스, 추운 날씨 예고에 급등

국제유가는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원유재고가 520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 했으나, 가솔린 재고가 270만 배럴 증가를 상회한 530만 배럴, 정제유가 예상치인 220만 배럴을 상회한 62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여기에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 물론, 달러 약세 및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 등 상승 요인도 많았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2% 넘게 하락. 한편,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고, 유럽 천연가스 TTF 선물은 앞으로 2주 동안 유럽과 영국 등에 강력한 추위가 올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

달러화는 중국 코로나 완화 정책 발표와 미국 3분기 단위 노동 비용 상승이 크게 축소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캐나다 달러는 금리를 50bp 인상하자 금리인상이 막바지라는 점이 부각돼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자 달러 대비 소폭 강세. 역외 위안화 환율은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으며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도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미국 3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2.4% 상승에 그쳐 예비치인 3.5%나 예상치인 3.3% 상승을 크게 하회하자 임금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가 확인되었다는 평가 속 급격하게 하락 전환. 여기에 연준의 12월 FOMC에서 50bp 금리인상 단행 등을 통해 금리인상 기조가 종료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

금은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 여파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기대로 상승했으나 일부 품목은 중국의 수입 감소 등으로 부진. 곡물은 최근 하락에 따른 숏 커버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밀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 대두가 중국 바이어들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자 옥수수도 동반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9% 하락, 철근은 보합 마감.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72.01    | -2.41   | -10.04  | Dollar Index  | 105.153  | -0.40   | -0.75   |
| 브렌트유    | 77.17    | -2.33   | -10.89  | EUR/USD       | 1.0510   | +0.41   | +1.00   |
| 천연가스    | 5.72     | +6.42   | -16.02  | USD/JPY       | 136.48   | -0.38   | -1.15   |
| 금       | 1,798.00 | +0.96   | +2.26   | GBP/USD       | 1.2212   | +0.65   | +1.28   |
| 은       | 22.92    | +2.51   | +5.11   | USD/CHF       | 0.9407   | -0.14   | -0.53   |
| 알루미늄    | 2,485.50 | -0.92   | +0.32   | AUD/USD       | 0.6728   | +0.60   | -0.88   |
| 전기동     | 8,456.50 | +0.42   | +2.64   | USD/CAD       | 1.3654   | +0.01   | +1.80   |
| 아연      | 3,183.00 | +0.86   | +4.79   | USD/RUB       | 63.3775  | +0.28   | +3.50   |
| 옥수수     | 641.25   | +0.78   | -3.71   | USD/BRL       | 5.2164   | -0.41   | +0.50   |
| 밀       | 749.50   | +2.81   | -5.78   | USD/CNH       | 6.9633   | -0.25   | -1.17   |
| 대두      | 1,472.00 | +1.27   | +0.27   | USD/KRW       | 1,321.70 | +0.22   | +0.22   |
| 커피      | 160.20   | -2.02   | -5.71   | USD/KRW NDF1M | 1,314.50 | -0.39   | +1.01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미국      | 3.421    | -11.09  | -18.49  | 스페인           | 2.762    | -4.30   | -18.40  |
| 한국      | 3.530    | +2.50   | -15.00  | 포르투갈          | 2.669    | -4.80   | -20.80  |
| 일본      | 0.255    | -0.10   | +0.20   | 그리스           | 3.710    | -3.90   | -44.30  |
| 독일      | 1.782    | -1.80   | -14.80  | 이탈리아          | 3.605    | -4.80   | -27.10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